대림 제4주일

서울주보

2008년 12월21일(나해)
- 제1660호 -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1 가톨릭회관 618호 |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www.catholic.or.kr

입당송 이사 45,8 참조

제1독서 2사무 7,1-5.8ㄷ-12.14ㄱ.16

화답송 시편 89(88),2-3.4-5.27과 29(◎ 2ㄱ 참조)

⊙ **주님,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으로 주님의 성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정녕 제가 아뢰옵니다. "주님께서는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성실을 하늘에 굳건히 하셨나이다." ⊙

○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 "그는 나를 불러 '주님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시옵니다' 하리라. 나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어, 그와 맺은 내 계약이 변함없으리라." ⊙

제2독서 로마 16,25-27

복음환호송 루카 1,38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

복음 루카 1,26-38

영성체송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진 묵상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이 성모님의 귀에 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아무개)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이 말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 사진: 황인선 바르나바

생명의 말씀

마리아의 믿음과 예수님 오심

박성칠 미카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사무처장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된 심리적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부정 - 분노 - 흥정 - 우울 - 수용의 단계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부정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젊은데 그럴 리가 없어. 이 검사는 잘못된 거야!" 이어서 분노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하느님에게 화를 냅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다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도 분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흥정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주님, 낫게만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흥정도 소용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단계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부정도 분노도, 흥정도 우울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패배의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순간일 것입니다.

이 다섯 단계는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도 발견됩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혼란에 빠집니다. 두려워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사건입니다. 약혼이 파기될 수도 있고, 율법에 따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도 흥정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다른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만은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어렵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고뇌와 갈등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리아의 위대함이 발휘됩니다. 남들은 여전히 부정하고 분노하고, 흥정하고 우울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마리아는 앞으로 한 걸음 크게 내딛고 있습니다(百尺竿頭進一步 백척간두진일보). 위대한 수락과 수용의 순간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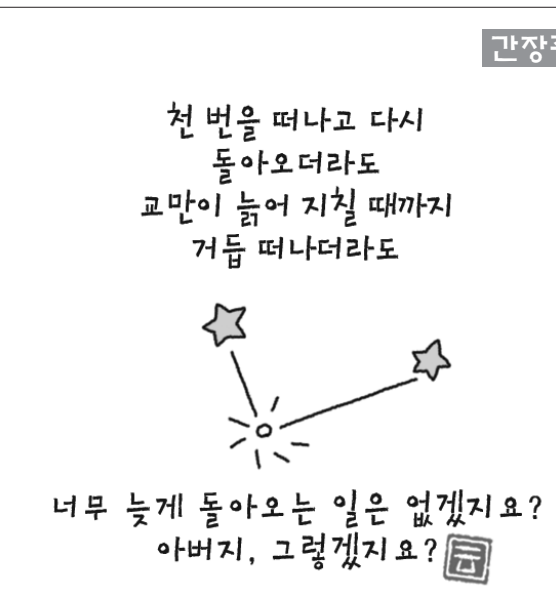
그러나 이 말은 우리들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마리아의 비장함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자신을 하느님께 송두리째 맡겨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은 아기 예수님이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참으로 잃음으로써 얻고,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것인가 봅니다. 믿음은 마리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백색의 마음! 그래서 오늘 대림 4주일에 우리는 흰색의 초에 환하게 불을 켰습니다.

간장종지



구상렬 하상바오로 | 만화가

말씀의 이삭

세계의 크리스마스

김현 요셉 | 방송인 · 여행 연출가

12월이 시작되면 세계의 구석구석은 캐럴이 울려 퍼지며 크리스마스를 맞을 준비로 분주해진다. 사람들은 트리를 반짝반짝 아름답게 장식하고 선물을 준비하며 한 달 내내 들뜬 마음으로 보내게 마련이다.

미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4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운행되는 산타클로스 열차가 있다. 바로 가난한 지역으로 손꼽히던 켄터키, 버지니아, 테네시 주에 걸친 애팔래치아산맥 일대의 주민들에게 줄 선물을 가득 실은 열차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 사람들도 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선물을 받기보다는 명물이 된 산타 열차를 구경하기 위해 마중 나온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교황님이 스페인광장 근처에 있는 마리아상(像)에 화환을 걸기 위해 소방차의 사닥다리를 타고 등장하면서 시즌이 시작된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바티칸성당에서 교황님이 직접 집전하는 미사라고 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탈리아 어린이들은 양말이 아니라 '운명의 항아리'를 통해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선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서 한 사람씩 선물을 꺼내 가는데, 가끔 '꽝'도 나오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돌아간다.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골짜기마다 교회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그리고 계곡의 마을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 종을 가지고 있는지를 겨루는 종 울리기 경기가 벌어진다.

한겨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닌 '뜨거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는 사람들도 있다.

호주는 섭씨 30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서 매미 울음소리를 들으며 성탄절을 맞는다. 그래도 때가 되면 거리에는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깃발들이 나부끼고, 상가에선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해 놓고 바겐세일이 한창이다.

아프리카 케냐의 성탄 또한 한여름이라 수영을 하면서 아기예수의 탄생을 기다린다. 성당에서는 여느 나라의 성당과 마찬가지로 아기예수의 탄생 장면이 꾸며진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특산물인 '흑단'이라는 검은 나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기예수도, 마리아도, 요셉도, 동방박사도 모두가 새까만 흑인이라는 점이 이방인들의 눈길을 끈다.

그리고 하와이의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가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트를 타고 온다고 믿고 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창조물과의 평화 40

생태사도직 하늘·땅·물·벗

지구를 생각하는 성탄 선물

모든 창조물들과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들도 서로의 마음을 담아 성탄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올 성탄절에는 비싸고 겉만 화려한 선물보다는 지구를 생각하는 성탄 선물 어떠세요? 우선 '스웨터'를 추천합니다. 집안에서 선물로 받은 스웨터를 입고 실내온도를 2도 정도 낮추면 에너지 비용을 4% 줄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자전거'를 선물하세요. 매연도 없고 면허증도 필요 없는 자전거는 이산화탄소에 시달리는 지구에 휴식을 줍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예쁜 '머그컵'을 선물하세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은 20년이 지나야 분해됩니다.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는 당신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선물하는 산타클로스가 됩니다!

"한 끼 100원의 나눔으로 마음을 살찌운다."

'직원들과 점심 한 끼 했을 뿐인데 마음이 더 불러지네요.'

한 끼 100원 나누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감나무식당(서울 관악구 신림동 위치)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가시는 손님들의 말이다. 하루 600여 명의 손님들이 오가는 감나무식당은 요즘 한 끼 100원 나누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시는 손님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처음 이 운동에 동참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이렇게 100원씩 모아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가게 홍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등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손님들도 식사를 마친 다음 100원을 모금함에 넣지 않으면 허전해서 밥을 먹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며, 다시 돌아와 100원을 모금함에 넣고 나서야 식사를 마친 것 같다고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신다는 감나무식당 손님들, 손님들은 한 끼(1인당) 4,000~5,000원에 이르는 밥값 중 식당에서 100원을 깎아 주고, 그 100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금함에 자발적으로 동전을 넣는다.

"한 사람의 큰 나눔보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모은 사랑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끼 100원 나누기 운동의 모토인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든다. 그냥 지갑에서 5,000~10,000원을 꺼내서 남을 돕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끼 100원 나누기 운동은 식사 중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 작지만 남을 위해 나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한 개인의 사랑과 마음도 크고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작지만 많은 이들의 사랑과 마음을 보태고 보태 큰 사랑의 물결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본 운동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한 끼 100원 나누기 운동'을 2006년 3월부터 펼쳐 2008년 11월 현재 440호점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복지회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회복지회에서는 이 운동을 2007년부터 받아들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함께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어 명실 공히 전국 가톨릭 나눔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끼 100원 나누기 운동'은 식당에서 모든 식사 메뉴를 100원씩 값을 내려받는 대신 손님들이 음식값을 계산할 때 거스름돈 100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도록 하는 전국민 나눔 실천 운동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식당은 음식값을 100원씩 할인해 4,000원짜리 음식은 3,900원을 받고 5,000원하는 음식은 4,900원을 받게 된다. 손님들은 거스름돈 100원을 받아 갈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적지만 100원을 모금함에 직접 넣음으로써 손님이 아닌 나눔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후원자로서 이 운동에 동참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등록되어 있는 262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100원! 작은 동전이지만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는 양식이 되어 전해지며, 식어가는 생명에게는 새 생명의 희망을 밝혀주는 사랑의 동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은인 분들께서 동참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운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을, 은인 분들에게는 마음을 살찌우는 100원이 되었으며 한다.

송용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자원개발부

· 참여문의: 727-2254, 2257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자원개발부
· 홈페이지: www.caritasseoul.or.kr/bokji

소식

12월25일(목)은 '예수 성탄 대축일'로 미사에 참례해야 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서울주보 특보 발행).

12월26일(금)에 영명축일을 맞이하시는 전임 교구장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12월28일(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가정 성화 주간(12월28일~2009년 1월3일)'이 시작됩니다.

교구청 직원 2008년 종무미사 · 2009년 시무미사

· 종무미사: 12월31일(수)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성당
· 시무미사: 1월5일(월) 낮 12시, 주교좌 명동성당

평화방송 TV · 라디오 명동성당 성탄 미사 생중계

· 밤미사: 12월24일(토) 밤 12시
· 낮미사: 12월25일(일) 낮 12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반포성당 여사무원 · 야간 관리원 모집

· **여사무원**: PC(한글, 엑셀) 가능한 성실한 교우(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야간 관리원**: 50~60세 남성(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문의: 599-0574, 0570 성당 사무실
· 접수: 12월26일(금)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12월27일 정치윤 이냐시오 신부(59세) 2007년, 용인

'서울주보'와 '그대 지금 어디에' 합본 보급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에서는 2008년도 '서울주보'와 월간 선교지 '그대 지금 어디에' 합본을 보급합니다.
· 서울주보: 1만 원, 그대지금어디에: 3천 원
· 문의: 727-2032, 3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평화화랑: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작품전

평화화랑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작품전'을 12월24일(수)~30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구청 기관과 단체 알림

경찰서 유치장 사목 봉사자 모집

· 대상: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로 세례 · 견진받은 60세 이하의 교우
·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경찰사목위원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요한 1,4)

세상에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리며,
지난 한 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 선포를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성탄과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주 교
김운회 루 카 주 교
조규만 바실리오 주 교

알림

모임

살레시오 수녀회 에파타 찬양모임
· 대상: 20-30대 미혼 여성 / 문의: 011-560-4658
· 때, 곳: 12월27일(토) 16시-19시(7호선 신풍역 4번 출구)

성령 선교 수녀회 송년특집 '빛내음 기도모임'
· 대상: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 010-5730-6322
· 때: 12월29일(월) 19시30분부터(sspskorea.org)

수도자와 함께 하는 성탄 전례피정
· 때, 곳: 12월24일(수) 17시-25일(목),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 서울 분원(장충동) / 2273-6394, 5(회비: 4만원)

향심기도 2박3일 수도자·성직자 소개피정
· 때: 1월5일(월) 14시-7일(수) 점심식사 후(회비: 8만원)
· 곳: 상지피정의 집(지도:이승구 신부) / 010-8674-1105
· 주최: 사목국 향심기도회(www.hyangsim.com)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철야 기도
· 때, 곳: 매주(화) 22시30분-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874-6346, 011-277-0317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강론은 매주 바뀜)

고성 까리따스 피정의 집
· 주제: 예수 성탄 피정(1박2일) / 강사: 황성옥 수녀
· 진행봉사: The story와 오동수 Donald / 회비: 5만원
· 때: 12월24일(수)-25일(목) / 033)638-4004, 010-9970-0282

젊은이 송년피정
· 대상: 한해를 정리하며 기도하고픈 젊은 여성
· 때, 곳: 12월27일(토)-28일(일), 씨튼 피정의 집
· 문의: 011-9193-3005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자를 위한 개인지도식 침묵 피정
· 때, 곳: 12월27일(토) 14시-28일(일) 17시, 도움이신 마리아 수녀회(주최) 부천 본원(회비: 2만원)
· 문의: 032)657-1150(www.marieaux.or.kr)

젊은이들을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 대상: 성령기도회에 관심 있는 젊은이, 중등부
· 주제: 성령을 받아라! / 문의: 011-490-5345
· 때, 곳: 1월16일(금) 14시-18일(일) 16시,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강당(회비: 1만원)

교구 치유기도회
· 찬양과 기도(찬미부): 12월24일(수)
· 감사 기도(문종원 신부): 12월31일(수)
· 때, 곳: 매주(수) 12시30분-16시30분(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 · 5535 · 6512 버스환승 후 신림8동 사무소 하차) / 867-7900 성령쇄신봉사회

제 18차 가톨릭 교사회 1일 대피정
· 주제: 행복한 복음생활 / 대상: 유치원·초·중·고 교사 및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미사준비)
· 강사: 이상재 신부(가톨릭신문사 주간), 이재을 신부(봉천7동 주임, 베리따스 지도신부)
· 때, 곳: 1월19일(월) 9시40분-17시 까리따스수녀원 성서교육관(서초구 방배동, 2·4호선 사당역 하차 후 1번 출구 직진 500m) / 회비: 당일 접수시 1만5천원
· 문의: 011-9889-1778, 011-286-8525 베리따스 교사회

이냐시오 영성연구소(예수회) 월 피정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무료 월피정	주제: 바오로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조현철 신부) 때: 12월26일(금) 10시-16시(미사, 점심 제공) 곳: 서강대 이냐시오 성당(개인 물컵 지참)
예수회 영성대학	주제: 이냐시오의 영성과 이해(이규성 신부) 때: 매주(목) 10시-12시 / 문의: 717-3869

교육

평화심리상담소 아동 미술 · 놀이치료
· 대상: 유치원·초등학생(내용: 툭하면 울거나 삐치고, 위축되어 말수가 적고, 대처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위한 미술·놀이치료) / 775-4831, 2 평화심리상담소

중 · 고등학교 계발활동 교육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 대상: 초대졸 이상교우 / 1월7일(수)까지 접수
· 때, 곳: **1차** 1월12일(월)-16일(금) **2차** 1월21일(수)-23일(금), 가톨릭 청소년 회관(역삼동)
· 문의: 553-7320~2(www.kycs.or.kr)
· 주최: 청소년국 중·고등학교 사목부(KYCS-CA)

명동성당 1월 예비신자 교리학교
· 환영식: 1월4일(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별관

목요반	오후 7시30분	교육관 205호	문의: 774-1784
주일반	오후 4시	교육관 205호	

· 명동성당 성지 미사: 월-토 오전 10시 지하성당

진애인 아동 · 가족치료연구소(문의: 587-9207)

심리치료 및 음악치료	정서 장애, 대인관계 부적응, 자녀문제(정서행동장애) 가족 간의 불화를 겪고 있는 부부, 가족(http://jinaein.com)
	언어로 말할 수 없는 내면 문제를 음악을 통해 치유
종합 심리검사(아동, 청소년, 성인): 정서(불안, 주의력), 지능, 성격 등	

아퀴나스 교회음악연구소 강좌(문의: 715-3793)

성가 반주를 위한 오르간 개인 레슨	1월5일부터(12주)
합창 지휘법	1월7일부터 매주(수) 오후7시-9시(12주)
성악 이론과 실기	1월6일부터 매주(화) 오후7시-9시(12주)
	1월9일부터 매주(금) 오후3시-5시(12주)

메종 프로그레스(발달 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 문의: 011-219-2059 /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전문적 종합심리평가, 상담, 심리치료	잡념이 많아 집중을 못하거나 자기 주장이나 분노표현을 하지 못하여 부적응 상태인 학생이나 성인,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 및 성인, 입시 및 취업스트레스가 심한 학생 및 일반인, 부부 및 고부갈등이 심한 가족

2009년 영성강좌 및 교육 안내
· 문의: 705-8163 한국CLC 문화와 영성연구소

세상속의 영성수련	믿는다는 것, 묵상, 관상, 성찰, 식별 등(10주간)
	1월8일-3월12일 매주(목) 19시40분, 서강대 이냐시오관 성당
목요신학 강좌	1년차: 총론과정(신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현대세계)
	2, 3년차: 성서연구과정(신약성서, 구약성서) 총32강좌
	3월12일 매주(목) 19시40분, 서강대K관 301호
길벗영성 강좌	그리스도인의 길, 신앙의 주요문제 등(월 1회)
	1월4일(월) 10시, 대치3동 문화센터
	1월8일(목) 19시40분, 서강대 K관 401호

모집

에이즈쉼터 직원모집
· 대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1명(봉사정신 필요함) / 문의: 010-5005-0355

성바오로 출판사 편집부
· 대상: 교정 교열 프리랜서 구함(www.paolo.net)
· 문의: 944-8300, 986-1361(Email: edit@paolo.kr)

노들담 몬테소리 학교(몬테소리 특성화학교) 어린이 모집
· 대상: 3세-7세 어린이(부모 면담과 어린이 면접 후 입학) / 문의: 763-2274, 011-9932-2276
· 홈페이지(www.ndmonte.com) 참조

충주 성모학교 (시각장애)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 대상: 유·초·중·고등부(재활과정 포함) 교육대상자 및 중도실명인 / 12월30일까지 접수
· 특전: 성심맹아원 입소, 취업알선, 대학진학 지도 등(http://chungjusm.sc.kr) / 연중 수시 상담
· 문의: 043)852-1374, 843-1374 학교법인 충주 가톨릭학원 충주 성모학교(시각장애 특수학교)

가톨릭교리신학원 교양강좌 '라틴어' 수강생 모집
· 내용: 가톨릭교회 전례용어뿐 아니라 서양언어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되며, 해외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강좌(회비:15만원)
· 강사: 윤종국 신부(라틴문학 전공, 서소문성지 관장)
· 때: 1월7일-2월20일 매주(수 · 금) 14시-15시40분
· 문의: 747-8501(http://ci.catholic.ac.kr)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수화교실 초급반(26기) 모집
· 내용: 초급 3개월 과정, 수료증 발급 및 중급과정 연계 (회비: 3개월에 2만원) / 문의: 423-7806, 7
· 때: 1월5일-3월31일 매주(월·화) 20시-21시(내방접수)

미사

여성연합회 송년 감사 미사
· 때, 곳 : 12월23일(화) 10시, 필동여성연합회관
· 미사: 민병덕 신부(미사 후 나눔의 잔치) / 778-7543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 성소후원회미사
· 때, 곳: 12월29일(월) 11시, 한남동 신학원
· 문의: 749-4596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대상: 신우회 회원 및 관심 있는 교우 / 753-0815
· 때, 곳: 12월24일(수) 10시30분, 명동성당 내 소성당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 미사
· 때: 12월26일(금) 10시30분 / 문의: 727-2414, 5
· 곳: 민족화해위원회 사무실(가톨릭회관 205호)

가정회복을 위한 기도와 미사(문의: 312-0662, 011-245-0121)
· 때, 곳: 12월22일(월) 13시30분-17시, 말씀의 선교수도회 주최(전철 2호선 아현역 2번 출구 05번 마을버스 종점) / 미사: 유용덕 신부(기도: 박용해)

절두산 순교성지 연령회 기도 · 미사
· 지향: 선종한 사제들, 불쌍한 영혼들, 조상들, 선종한 부모와 형제 자매들 / 010-7534-1866
· 때: 12월26일(금) 12시(연도) · 13시(미사)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구일 기도와 미사
· 내용: 구일기도 및 강의, 미사봉헌과 고해성사
· 때, 곳: 12월22일(월) 오후2시, 수유1동성당
· 문의: 598-1312, 010-5387-1312 구속주회 신부

살레시오 관상 기도와 미사, 영성강좌, 연수
· 대상: 누구나(지도: 김보록 신부) / 848-9932 , 010-711-9928
· 때, 곳: 매주(목) 오전 10시30분-12시30분, 까리따스수녀원(전철 2호선 사당역 1번 출구 직진 500m우측)

안내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문의: 582-6004, 6012)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65세 이상 치매어르신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신규사업 실시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 집'
· 대상: 여대생(종교무관) / 주소: 대전서구 괴정동 1143
· 문의: 042)534-8876 성체선교글라라 수녀회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 기증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2014년 개교 100주년을 준비하며 도서 기증을 받고 있음
· 문의: 053)850-3265(http://lib.cu.ac.kr)

한국 가톨릭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 때, 곳: 1월13일(화) 19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연주곡: 모차르트 레퀴엠(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미사곡)
· 문의 및 예매: 1577-3217 한국가톨릭문화원 사무국, 인터파크 / 지휘: 이상철 신부(주최: 한국가톨릭문화원)

나눔의 전화(전화 · 면접 상담)
· 가정문제, 부부갈등, 청소년 문제, 정신건강, 위기상담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상담
· 매주(월-토) 10시-21시30분(일 · 공휴일 휴무)
· 상담 전화: 752-4411, 4413(면접 예약: 727-2250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팩스나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고 전화 접수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그리스도 수도회	12. 28. 10시-14시	은평의 마을(구산동)	011-734-3492
마리아의 종 수녀회	12. 28. 14시	돈암동 분원	010-3065-8221
살레시오 수도회	12. 27-28(1박2일)	대림동 공동체	831-3068
성모 영보 수녀회	12. 28. 14시	과천 본원	011-9920-9423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12. 28. 14시	다락 공부방(현저동)	011-9731-0283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12. 28. 14시	동자동 지구센터	018-564-1135
성심 수녀회	12. 28. 13시30분-18시	원효로 청원소(미사있음)	010-9562-3339
천주교 서울 국제 선교회	12. 27. 14시	사당5동성당	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12. 27. 14시	광주 수도회 본원	010-7169-8427

www.cph.or.kr 믿음 · 희망 · 사랑을 일구는 가톨릭출판사 www.catholicbook.kr

서울대교구 출판기관인 가톨릭출판사에서 매월 셋째 주 '문화마당' 란을 통해 신간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비처럼 내려진 묵상과 기도, 성경이 어우러진 21세기 하느님 이야기

당신의 아침을 여는

말씀지기

The word among us 지음 | 가톨릭출판사 옮김
128×188 | 각 권 96쪽 | 각 권 900원

잠시 하느님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벅찬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지기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구성된 월간 묵상집이다. 1981년 미국에서 처음 발행되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월간지 〈The Word Among Us〉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출간하고 있는 말씀지기에는 매달의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이나 인물을 골라 심도 있는 해설을 덧붙이는 **'영성 에세이'**, 가톨릭 성인이나 독자들의 하느님 체험을 소개하는 **'내 안의 말씀'**, 연중시기로 나뉜 매일의 전례에 따라 깊이 있는 묵상글을 싣고 있는 **'30일 묵상'**, 사제들의 자아 성찰과 단상이 솔직 담백하게 담겨 있는 **'아침 뜨락'** 등 묵상과 기도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제공하는 칼럼들로 채워져 있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 다윗 임금에게서 리더십을 배운다!

세례자 요한, 모세, 아브라함 등 성경의 인물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해 온 정진석 추기경이 이번에는 다윗의 일대기를 그린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갈라진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다스린, 강하고 정의로운 임금이자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한 신앙인인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성경을 토대로, 생생하고 흥미롭게 보여 준다.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성왕 다윗

정진석 추기경 지음 | 154×210 | 296면 | 15,000원

대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데레사 성녀는 어떻게 성화해 나갔을까?

성녀가 되기까지의 한 인간으로서 데레사 성녀의 성장 과정과 내적 변화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데레사 성녀가 대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부정을 어떻게 성화해 나갔는지 분석한 책이다. 데레사 성녀는 이웃을 자신의 성화를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이웃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너그러운 열린 태도를 지녔다.
특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 책에서 소개해 주는 데레사 성녀와 이웃과의 관계를 깊이 살펴봄으로써 이웃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데레사와 이웃

P. 데쿠브몽 지음 | 정대식 옮김 | 154×224 | 352면 | 9,800원

가톨릭출판사 * 영업팀 02-360-9139, 9172 * 인터넷 가톨릭서점 www.catholicbook.kr

뮤지컬 '사도 바오로 - 하느님의 모상(Imago Dei)'

· 입장권: 전석 3만 원 | 문의: 2253-9191(www.ticket.interpark.com)

바오로 탄생 2000년 기념 가톨릭 창작 뮤지컬 '사도 바오로 -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이 12월23일(화)~2009년 1월4일(일)에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공연한다. '바오로 해'를 맞이해 바오로 생애의 이해와 더불어 하느님의 모상을 발견하기 위해 완성한 작품이다. 현요한 신부(제주교구)의 지도로 연출가 지성구가 연출하고 생활성가 가수 박우곤이 OST를 만들었다.

· 공연시간: 12월23일·25일·30일 오후 8시 / 12월24일·31일 오후 3시
12월27일·28일, 1월1일~4일 오후 3시·7시

'빈 소년 합창단' 신년 음악회

· 입장권: R석 10만 원, S석 8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스트리아의 자랑 '빈 소년 합창단'이 1월21일(수)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음악회를 갖는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신년 음악회로 중세 교회 음악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민요와 팝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다. **성당에서 100인 이상 단체 관람시 30% 할인하고 성당에 방문해 성가곡을 연주해 준다.** / 예매 및 문의: 1577-5266

10% 할인 금액으로 전화예매 후 티켓 수령시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를 지참하면 할인됨(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